

부처의 가피 아닌 당신의 지혜가 고통 벗어나게 해

달라이라마, 10월 23~25일 다람살라서 한국불자와의 만남 가져



달라이라마는 ... 제14대인 달라이라마는 1940년 포탈라에서 즉위한 이래, 티베트족들의 정신적 신앙적 지주로서 평생을 중국으로부터 티베트의 독립을 이끌어 내는 데 헌신해 왔다. 달라이라마는 1959년 중국의 티베트인 학살과 불교사원 파괴로 인도 다람살라로 망명한 뒤 티베트망명정부를 수립했다. 달라이라마는 지속적으로 티베트 독립운동을 전개해왔으며 세계평화를 위한 비폭력주의를 고수했다. 이러한 공로로 그는 1989년에는 노벨평화상을 1994년에는 세계안보 평화상과 루스벨트 자유상을 받았다.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위없는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을 안내한 보물지도가 있다면 어떻까. 10월 23~25일 인도 다람살라에서는 한국불자들과 달라이라마의 만남이 이뤄졌다.

아침 9시부터 시작된 법문은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하루 두 차례씩 3일 간 진행됐다. 달라이라마는 한국불교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우바새 유아의 사회적 역할이 지닌 중요성을 강조하고, 일상에서 수행 가능한 마음 다스림의 방법을 권고했다. 이번 법문은 종가과 대사의 <보리도차제론>에 관해 설명했다. 달라이라마는 이 가운데 지관수행의 핵심적인 부분을 법문했다. 달라이라마는 “삼매와 관 수행은 도를 닦음에 필수 단계이다. 오늘의 법문이 각자의 근기에 맞는 수행을 취하고 향상시키는데 윤회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법문의 요지이다.

현상에서 필요한 것을 이루기 위해, 선한 도덕적 삶을 이루기 위해, 종교와 관계없이 행복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삶을 이뤄 가야 할까요. 의사는 항시 환자에게 ‘휴식’을 당부합니다. 내안의 탐진과 분노가 쉬지 못한다면 진정한 ‘휴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휴식이 아니라 마음을 쉬는 것이 진정한 휴식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안정화 되면 실제로 인간의 면역 체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일상에서 구현하는 행복은 돈과 같은 외부조건이 아닙니다. 종교를 떠나 세속적인 일상에서의 도덕적 실천으로써 행복을 구현하는 방법을 이야기 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입니다.

붓다의 네 가지 몸(법신-보신(미세한 색신)-화신(중생의 근기에 맞춰 나뉨)-지혜법신)을 근거로 <보성론>의 여래장에서 이르기를, “현재 마음상태에 존재하는 허물과 붓다를 이룰 수 있는 근본과 근치인으로서 마침내 청정신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객진의 허물이 모두 제거 되었을 때 객진청정신과 자신청정신을 구축하며 마침내 공극의 깨달음을 이루게 됩니다. 붓다의 생을 요약한 것이 삼학(계정해)입니다. 붓다께서 몸소 보이신 출가의 모습과 실천은 계학, 6년 고행은 정학, 이를 말미암아 이루신 보리의 정각이 해학입니다. 붓다의 이러한 행장은 수행자의 본보기가 됩니다.

무명은 어떻게 없애는가. 현상계의 존재 방식 즉, 전도된 실상을 반대되는 바른 견해를 통해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이해하는 것 만으로서는 끊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체득 즉, 진여를 실질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필요한 것이 일념의 삼매입니다. 이것은 정념(正念, 바른 기억)과 정지(正知, 알아차림)를 통해 가능해집니다.

이를 일상에서 점차 발전시키면 삶은 영위할 수 있습니다. 대상을 진여로 삼아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삼매를 이룬다면 그에 해당하는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정지와 정념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는 불방일(不放逸)으로써 진행됩니다. 이 불방일은 계학을 통해 실천시킬 수 있습니다.

지관(止觀)은 불교에만 있는 고유한 것이 아닙니다.

외도에서도 수행으로 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관수행 없이는 도를 이룰 수 없습니다. 외도의 지관은 무아의 지견 없이 세간에 초점을 두는 반면, 불교에서의 지관은 소승과 대승에 공통되며 현교와 밀교에서도 공통됩니다.

지관은 일념의 마음 상태에서 몸과 마음이 경안이 일어나는 깨달음의 상태이며 분석을 통해 진면목을 일깨운 상태입니다. 월정 보살은, ‘해탈을 원하는 자의 귀의처는 삼보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교의 해탈은 번뇌를 완전하게 끊은 공덕이 발현된 상태를 말합니다. 아집에 속박되어 있어 우리는 해탈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아의 지견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무아의 지견을 깨닫는데 있어서는 관(觀)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지(止) 수행을 해야 합니다. 해탈을 위해서는 번뇌를 끊어야 하기에 이에 대처되는 무아수행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해탈을 위한 수행은 소승의 수행이 됩니다. 궁극의 이타(일체중생)를 이루기 위해 지관을 수행하는 것은 대승의 보리심을 근간으로 삼습니다. 정광명을 현현하기 위해 지관수행을 하는 것은 밀교의 지관수행입니다.

**내 안의 탐진과 분노가 쉬어야 진정한 휴식
해탈을 위해서는 무아(無我) 수행을 해야
지관 수행 하지 않고는 도(道) 이룰 수 없어**

다. 동기에 따라 희구심에 의해서 수행하는가, 개인 해탈이 목적인가, 보리심을 목적으로 하는가에 따라 소승 대승 그리고 밀교의 지관수행으로 구분됩니다.

선취에 나기 위해서는 인과법을 통한 지혜로서, 일체중생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리심을 바탕으로 한 공사상이 요구됩니다. 해탈을 구하는 마음을 염리심(출리심)이라고 합니다. 이 역시 공성에 대한 바른 지견 없이는 낼 수 없습니다. 단순한 공성의 지견이 소지장(所智障)을 대치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보리심 수행을 근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보리심을 희구하는 동기를 낼 때만 소지장을 대치하여 최종의 성불에 이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인아집과 법아집 그리고 신견과 같은 지성적인 번뇌를 녹이는 데는 자비심과 자애심의 방편을 요구합니다.

보리심의 근본이 자비심입니다. 자비심은 출리심이 일어나야만 가능합니다. 붓다께서 처음 ‘고통을 알라’고 설하셨을 때, 이 고통은 ‘행고(이 몸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행고에 대해서 하나의 고로 인식하고 이로써 벗어나고자 하는 출리심(出離心)이 생겨야만 괴고(일상에서 느끼는 변화성을 느끼는 부분)와 행고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다룬 것이 <람림>의 중사도입니다.

선지식께서 말씀하시기를 “초석이 견고할수록 서까래를 엮을 때 보다 튼튼하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행고를 고로서 알고 이를 제대로 인식했을 때만 타인의 행고(行苦, 생명의 변화로 받는 괴로움)가 멸

하기를 발원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무주처의 열반에 드는 것이 상사도의 단계입니다. 보리심을 일깨우는 과정에서 원보리심의 발심 의식을 하고 열렬한 마음을 내어 보살계를 받아 지녀 육바라밀행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바라밀행의 마지막이 선정과 지혜입니다. 이 선정 지혜 수행의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지관수행’입니다.

<해심밀경>에서는 “분석해서 알아보고 확신을 지니는 일상에서의 마음처럼, 우리가 어떠한 수행을 하건 간에 한 대상에 집중하거나 분석하는 것은 공덕을 이루는 근원이 된다”고 일깨우고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 역시 지혜와 방편으로써 가능합니다. 지혜가 하나의 힘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지수행입니다. 그렇기에 ‘지’와 ‘관’은 쌍수를 이루어 수행돼야 합니다.

수행을 했어도 머리가 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을 대상에 두는 것에만 집중하면 초래하는 현상입니다. 수행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상태를 완전히 알지 못하면 다양한 허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몸을 어찌 다루어하는 가를 다른 ‘비로칠법’을 보면, 반가부좌의 상태에서 눈을 완전히 감지 않은 상태에서 코끝을 주시하고 곧은 자세로 오른손을 위로 하고 엄지손가락을 가지런히 붙여 선정인을 취하며 허를 천정에 붙이고 몸을 안고 당깁니다. 일반적으로 눈을 감으면 산만함으로 흐르지 않을 것으로 여기지만 수행의 대상이라는 것은 마음 속 의식으로 떠오르는 영상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눈을 반개하는 것은 마음이 다른 곳에 이동할 수 있지만, 마음의 영상에 집중하면 눈앞의 것을 인식하지 않게 됩니다. 호흡 역시도 고르게 삼아야 합니다.

불법은 고통에서 벗어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구제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때 가능합니다. 자신은 스스로만이 구제할 수 있습니다. 붓다의 가피로서 해탈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관수행에 있어서 인식하는 대상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점수법기와 돈수법기 즉,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전 되는가 혹은 지관수행시 바로 광명으로 이끄는가의 차이입니다. 이는 수행자의 근기에 따라 주어져 합니다. <해심밀경>에서는 ‘모든 불교 수행자가 금강승의 본존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당부했습니다. 각기의 근기가 모두 차별된 이유입니다. 선차적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오직 선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세 가지 나태함을 끊도록 해야 합니다. 지수행으로써 몸이 가벼워지고 의식이 보다 명료해 짐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정진을 일으킬 때는 삼매를 구함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인무아가 있습니다. 이는 ‘나’가 자성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식에서는 나의 습으로 인해 생각하는 것일 뿐 대상 그 자체에는 외경이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외경과 내가 인지하는 의식의 관계성에 대해 진실로 있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 본래 그렇지 않다는 중관을 통해서도 보다 심도 있게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지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사찰 전기공사 상담대환영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해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디자인특허등록 2010-0039035

황금위패

亡嚴父 南宮 人 宗 行 孝 行 孝 伏 爲 靈 駕

고급 밤나무 재질, 울각으로 각인 후 금칠, 수작업 개금

하나하나 정성을 다한 수조각

• 규격 大 / 中 / 小 의 다양한 규격

• 흑단제사용위패(가정용)

대표전화 : 02-966-9650
휴대전화 : 010-8238-1511
팩스 : 02-921-9650
홈페이지 : www.dya.xo.st

창사 18주년 기념

부처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성지순례

미얀마

(대한항공 직항) 1월 15일 출발, 1월 19일 출발. 양곤 | 바간 | 헤호 6일 199만원 추가경비 없음

◇ 미얀마 성지순례 출발확정 : 1월 26일, 2월 7일, 2월 24일

◇ 미얀마 완전정복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7일 1,840,000원

특급호텔 : 양곤-세도나, 바간-뜨레저, 만달레이-세도나, 헤호-뜨레저

전일정 : 특급호텔 및 아름다운 리조트, 가이드+기사탑 포함, 미차투어, 유류세(260,000원)불포함

미얀마 성지순례 3월 출발

◇ 양곤 | 바간 | 헤호 6일 : 1,650,000원 (유류세 별도)

◇ 골프투어 5일 (요금문의)

인도

◇ 완벽 8대성지 아그라 타지마할 9일 2,540,000원

◇ 완벽 8대성지 아그라 타지마할 10일 2,590,000원

전일정 : 5성급호텔, 일급호텔, 한식요리사, 고급버스, 가이드+기사탑 포함 등등, 추가경비 없음.

스리랑카 특급일정

전통불교성지순례 6일 담בל라 | 시기리야 | 아누라다푸라 | 캔디 | 풀른나루와 | 콜롬보

■ 「땃대! 특가」 라오스 문화탐방 성지 순례 1,399,000원 부터

■ 베트남 “하롱베이” 캄보디아 “씨엘립 앙코르왓” 1,049,000원부터

■ 하와이 5~6일 (요금문의)

■ 장사 | 장가계 | 원가계 | 천문산 5~6일 (요금문의)

미얀마 종교성 관련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주)에스큐 마하연투어 02)365-7747



달라이라마의 법회에 참석한 400여 한국인들

나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치심을 없애기 위해서는 연기법 수행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윤회를 돌게 하는 12연기법에 의해 온 심팔계 심이체가 있습니다. 연기란 나는 오직 온에 의지해 이를 붙여진 것일 뿐임을 알 때 윤회를 벗어나게 합니다.

집착과 자만의 마음 의식 자체가 원래 있는 것처럼 여기는 이들을 범시다. 그들 스스로가 자신은 용기 있는 자라고 여깁니다. 지구상의 끊임없이 일고 있는 사건 사고는 이러한 자만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번뇌와 탐욕의 허물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부정관 수행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아집을 완전히 끊지 못하면 미세한 탐욕이 남아 있게 됩니다.

분노와 탐지심, 그리고 아만심은 지수행에서 하나의 화두가 될 수 있습니다. 지수행을 행하는 초심자가운데 유독 산란함으로 치우칠 때는 눈을 뜨고 한 곳에 지긋이 대상에 집중하도록 하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지수행에서는 감각기관을 끊고 오직 마음 의식의 영상을 소연으로 삼습니다.

한 예로, 외부의 꽃을 대상으로 삼을 때 이를 어떻게 대상화 하는가. 눈이 꽃을 자세히 보고 마음에 꽃의 형상을 떠올립니다. 눈으로 본 꽃의 특징들이 마음속에 선명히 떠올리면 이 또한 지의 한 대상이 됩니다. 불상을 대상화 할 때는 그 크기가 1인치 정도이며 무거운 무게로 그 모습이 무지하게 광명으로 비추는 모습으로 현상화합니다. 밀교수행에 있어서 지수행은 본존관을 합니다. 본존의 모습을 명료히 떠올려 그 본존을 '움아흠'의 빛이 일어나는 부분을 모습으로 현상화 합니다.

지수행에 있어 지난 과거와 미래에 관한 생각은 잠시 쉬고 현재 상태 의식만을 남깁니다. 현재 상태에서 지수행에서 마음을 대상화하기 위해서는 명료의 상태를 유지토록 해야 합니다. 과거와 미래에 대

자신의 행고(行苦)를 바로 알아야

타인의 행고 소멸 발원 할 수 있어

자신만이 스스로를 구제한다

한 분별이 없이 현재만을 보면 '덩 빔'과 같은 현상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분별이 없어진 빈 상태입니다. 이를 지속시켰을 때 비로소 마음의 자성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삼중요도》에는 "연기를 보지 못하면 붓다가 설한 진여를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경과 논이 간에 한 가지에 집착하게 되면 많은 모순을 낳습니다.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공부하여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하도록 해야 합니다. 세간인들은 특별한 가르침에 쉽게 속기해지기도 합니다. 앞선 성취자들께서 검증하시고 일깨우신 바를 넓고 신중히 받아들여야겠습니다.

공성 또한 지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지만 특별한 지혜의 근기를 지닌 이들과, 확연한 공성의 확신이 있을 때에만 바른 공수행이 가능해 집니다. 이에 대해 티베트의 스승들은 지수행을 통해 공성을 구하는 경우와 반대로 공성의 견해를 먼저 구하고 지수행에 임하는 두 가지 수행 방식을 권했습니다.

대상에 마음을 어떻게 집중하는가. 삼매가 지니는 특징은 대상에 마음을 두는데 오롯이 마음이 선행히 머물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방해 하는 것이 혼침과 도거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마음이 흘렀을 때 그 대상에서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잡고 있는 것이 정념 즉, 억념입니다. 여기서 요구되는 것이 살피는 마음인 정지입니다. 지속적인 지수행을 통해 살피는 마음은 세밀한 알아차림의 상태가 됩니다. 정지의 알아차림이 부족하면 실제 대상을 마음에 두고 수

행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혼침과 도거에 빠지게 됩니다.

지(知)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배우는 문력을 기반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후에는 들은 그대로 실천함으로써 사유력을 키워야 합니다. 기억의 힘을 키우고 정지의 힘을 키우면 완전한 집중력으로 대상을 마음에 두게 됩니다.

삼매의 수행법을 바로 알아 수행한다면 구주심이 자연스럽게 순차적으로 일어납니다. 《해심밀경》에서는 "정념과 정지를 지속적으로 의지했으나 노력이 없이 삼매에 들었다면 이는 지에 들었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몸의 느낌이 확실한 경안의 상태에서 지속되면 마음도 따라 경안이 일어나 기운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분별하는 의식이 지닌 흔들림을 조종하는 기운(에너지)이 일어나면 초선정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수행의 목적은 무엇인가. 삼매력을 배양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관을 이루는 버팀목이 됩니다. 윤회의 근본을 뿌리 뽑지 못한 것을 세간의 관이라고 하고 무아의 지견을 깨닫는 관을 출세간의 관이라고 합니다. 육계(오근의 감각에 의해 대상이 있고 오욕을 키움), 색계(육계의 상계로서 육계의 허물을 끊음으로서 이쁨), 무색계(색계의 상계로서 최종 유행전에 이쁨)인 삼계의 단계를 밟아 직접적인 선정을 닦습니다. 하계의 허물로서 상계의 공덕을 관찰하는 삼매를 통해 미세한 상위 단계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성취된 지를 공성을 통해 관으로 이루어 가는 것을 지관쌍수라고 합니다. 오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관쌍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밀교수행에 있어서도 지관쌍행은 필수 불가결합니다. 불교 내의 대소승과 현밀교를 막론하고 지관쌍행은 모든 수행의 핵심입니다.

인도 다람살라=가연숙 객원기자 ornflower@gmail.com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동국대 선학과 교수

생색내지 않는 삶

수년 전의 일로 기억된다. 태국 방콕의 국립 쫄라랑콘 대학에서 세계불교학술대회가 개최되어 참석했다. 그 국립대학에는 장엄스럽게 모셔진 불경의 경장(經藏)을 볼 수 있었다. 어느 대학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광경이었다. 학생은 물론이고 온 국민이 불교도인 듯했다. 합장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고, 그런가 하면 얼굴에는 편안함이 깃들여 있기도 했다.

관광지로 유명한 치앙마이 한 계곡에서 목욕하며 노동 후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던 코끼리들의 여유로움이 이 나라에서나 느끼는 목가적인 풍경이었다. 저 코끼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말을 할 줄 아는 코끼리가 있다면 나에게 휴식과 먹거리 밖에 바랄 것이 없다고 말할 것만 같다.

그 평온을 유지하던 태국에 물이 범람하여 국민 생활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소중한 불교 문화재가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됐다고 연일 보도되고 있다. 그 결과 세계 쌀 생산국으로 꼽히는 나라에서 쌀값의 폭등은 확인한 일이 됐고,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부품 생산에 차질이 생겨 세계 경제를 압축하게 하고 있다고 한다.

원래 하늘과 땅은 말이 없다. 뭘 바라지도 않는다. 중국의 천자들은 통치 기간에 치산치수(治山治水)를 제일 과제로 여겼다. 산림녹화사업과 관개수로를 원활히 소통되게 하는 것이다. 중국말에 메이파자(沒法子)라는 말이 있다. '어찌 할 수 없다'거나 '그럴 수밖에'라는 의미가 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항력이라는 말이다. 물을 다스린다는 것이 비단 옛 일만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대동한 과제로 남아 있다.

하(夏)나라 우왕(禹王)은 하남성 용문산의 폭포를 3단으로 나누어 가로막아 홍수를 피할 수 있게 했다. 3월 3일 꽃피는 계절이 되면 잉어가 그 3단의 폭포를 오르려는 전설이 있다. 그 세 단을 다 오르고 나면 그 잉어는 용이 되어 승천한다고 한다. 그러나 채 오르지 못한 잉어는 오히려 바위에 머리가 부딪치기도 하고 가시뿔붙게 할기도 하여 이마나 온 몸에 상처만 남기게 된다고 한다. 그러한 물고기를 점액(黏鱗)이라고 한다. 온 몸에 상처투성이가 된 잉어는 힘없이 하류로 밀려가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천자는 자연 재해를 염려하고 성인은 인간의 심성을 걱정한다. 영가현각은 《증도가》에서 "깨달음이란 곧 마침이다. 공을 들이지 않는다. 온갖 유행법과는 같지 않다. 생색내는 보시는 하늘나라 가는 복이요. 그건 활을 겨누어 허공에 쏘는 것과 같다. 세력이 다하면 활이 도로 떨어지듯 다음 생애 뜻하지 않음을 받는다"고 말했다. 유행법이란 현상계를 말하며, 미혹한 세계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말한다. 유위복도 또한 다를 바 없다. 세월의 흐름 속에 마침내 끝이 보인다. 그러기에 유위복을 "수행인에게 있어서 복은 삼세의 원수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아니, 왜 그 좋다는 복이 삼세의 원수가 되는가. 첫째는 복을 짓느라 한 생을 보내게 된다고 한다. 둘째는 복을 쓰느라 한 생을 보내게 되며, 셋째는 복을 다 쓰고 나면 다시 박복하게 한 생을 보내게 되기 때문에 3생을 복 때문에 헛된 세월을 보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일깨워 주는 범보시는 그 결과 깨달음이고, 해탈이다. 유행을 탈각한 무한한 행복과 영광을 안겨준다. 정법이 있고 올바른 가르침이 있는 곳에는 불보살이 함께 하고, 선사들이 그 곳을 옹호한다.

선사들의 수행 모습에서 공통점이 발견된다. 선사들은 한결 같이 기복(祈禱)하는 일이 없다. 그 보다 더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선사들은 한결같이 기복하는 일 없어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만 해야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유일무이한 시간

생색은 작을수록 더 큰 결실 맺는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만 점점 했을 뿐이다.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무엇보다 비교할 수도 없고 무엇보다 거래할 수도 없는 유일무이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주어진 지금을 낭비하지 않고 잘 활용하는 것만이 비전 있는 삶이라고 확인했을 것이다.

침묵하는 산을 본다. 말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인간을 본다. 자연은 말없이 순환의 질서를 지킨다. 과시 한다거나 추월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연 앞에서 경외심을 갖는다. 자기표현을 열심히 하는 인간 세상에서는 나를 알아 달라는 말이나 행동이 앞서서 가는 것 같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토라지기도 하고 마침내 결별이란 수순을 밟기도 한다.

씨앗으로 번식되는 식물이 어찌 한 두 가지 뿐이라. 과목의 씨앗은 크기가 4mm인데 나무의 크기는 엄청나다. 어느 때 인지 모르겠는데 씨앗은 바람결에 날아와 산모퉁이에 자리를 잡았다. 그 나무를 보살 필 수 있는 일이란 고작 눈길을 주고 용이가 생기지 않게 가지를 잘 쳐주는 일이다. 그런데 몇 년 사이 두 손으로 감쌀 수 없도록 밀둥이 크게 자랐다. 과목의 씨앗은 생색을 내지 않았다. 생색은 작을수록 그 결과는 크게 결실을 맺는다는 이치를 과목에서 배운다.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삼환양초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향을 원료로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New 디자인특허 출원번호 제 30-2011-0010353 / 제 30-2011-0010355



New 디자인특허 출원번호 제 30-2011-0034559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一人一燭 연꽃밀납양초

신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밀납초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스님 및 여러 불자님들이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구성되어 있어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도록 만든 신개념 제품입니다. 특히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 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1초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 칠성기도, 허공기도, 천신기도 세트
바람막이가 씌어 있는 상태
바람막이가 없는 상태
구성 : 스텐레스 받침 1개 / 크리스탈 받침 7개
P.C 컵밀납초 7개 / P.C 바람막이 7개(여분증정)

• 원기둥초 (7.5Ø×29cm)
PC바람막이
용도 : 허공기도, 천신기도시 바람막이



• 도자기 인등
小 가로 13cm 세로 17cm
大 가로 15cm 세로 19cm